

규제철폐 100일간 129건 해소…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 규제혁신 방안 공유

즉시 시행 가능한 안전 2건 포함
규제철폐안 7건 추가 발굴·발표
국장급 전담조직·총괄관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의 100일 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민관 폭넓은 참여”

시는 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전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7일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추진 성과를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 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송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

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전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전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신규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4~8시간)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던 규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앞으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각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과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 발표

이날 시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 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 등을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아동 과일 공급 2배로 늘린다

취약계층 아동 식생활 지원 강화
480개 아동기관에 과채류 공급
청소년 아카데미·키움센터 포함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애들아 과일 먹자’ 사업을 2025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애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영양교육과 과채류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민·관 협력 사업이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더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키움센터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학생들이 제공받는 과일 모습. /서울시

아울러 시는 사업 문턱을 낮춰 신청기관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사업 신청 기관은 총 480개소로, 243개소던 전년 지원 규모의 2배 수준이다. 올해 사업 신청 기관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신선한 제철 과채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확대는 그간 사업에 참여한 아동기관과 학부모 요청에 따라 서울시와 후원기관들의 협력으로 가능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참여 4000여명 초등학교생의 매일 과일 섭취율은 5.0%, 채소 섭취율은 3.3% 증가했으며, 주1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3.3% 감소했다. 참여 아동 학부모의 78%가 자녀의 식생활·영양지식 향상을 제감했으며, 96%의 학부모와 97%의 아동기관 담당자가 ‘사업 지속 필요’의견을 내놨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 식생활 지원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청소년 도박 예방 집중교육

12~18일까지 7일간 운영

교육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집중 예방교육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서울을 기점으로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된다.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

별강연 등 행사가 운영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교육청·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안내서(매뉴얼), 도박중독 선별검사지, 전문가강사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감위·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63개로 확대

기후재난 선제 대응, 가입률 37% 목표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2024년에는 34%를 기록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올해 보험 가

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 8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은 제외된다. 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추가 등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개소 5주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해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융합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강연과 인하대 우수 연구 성과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저명인사 초청 강연에선 컴퓨터 비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이경무 서울대 교수와 양명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이

어 미국 켈컴사 송오석 박사,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김재철 상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준우 PM이 초청 강연을 맡았다.

인하대 컴퓨터공학과 최동완 교수, 전기전자공학부 이한호 교수, 해양학과 우승범 교수, 전기전자공학부 송병철 교수는 인공지능·인공지능 응용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성과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며 인하대의 연구 우수성을 알렸다.

2022년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사업, 2024년 생성AI 선도인재양성사업에 추가 선정돼 융합연구센터와 융합대학원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현진 기자